

形象에 관한 문헌 고찰 - 內經을 중심으로 -

강경화 · 백근기¹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Study on Hyungsang in Nei Ching

Kyung Hwa Kang, Geun Gi Baek¹,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In Jang-Sang theory, 'Sang' indicates 'Hyung Sang'. The internal organs appear it's shapes(Hyung Sang) outward. 'Hyung Sang' is concept that was used on 「the book of changes」(周易) and 「Nei Ching」(內經) to means a thing's shapes and conditions. 'Hyung' is the shape, an organization composing a thing and 'Sang' is the symptom, an essence(a seed) immanenting a thing. To observe Hyung Sang, it have to apply the principle that 'the sky and man correspond each other(天人相應)'. Usually 'Hyung' appears as shapes and 'Sang' appears as colors and conditions. Diagnosis on the basis of Hyung Sang put first the external expression of the five Jang six Bu organs(五臟六腑) and Jung-Ki-Shin-Hyul(精氣神血). So a doctor has to unite shapes, colors, pulse and symptoms(形, 色, 脈, 症) when diagnosis a patient. The theory of Hyung Sang includes the basic theories of the oriental medicine, the theory for Yin-Yang and the five element(陰陽五行論), organ picture(Jang-Sang), meridians(經絡學說), the five circuit phases and the six atmospheric influences(運氣學說), physical constitution(體質學說). I think that treatment based on Hyung Sang is shown the essence of the oriental medicine well. In the future, I think, we need to study more about the theory of Hyung Sang.

Key words : Hyung Sang(形象), Yin-Yang, Jung-Ki-Shin-Hyul, Jang-Sang, constitution

서 론

우리가 임상을 하다보면 같은 질병에 같은 처방을 써도 어떤 때는 잘 治療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經驗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形象의 차이가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장상학에 있어서 臟象의 '象'은 형상이다. 체내 에 있는 臟은 體外로 그 形象을 드러낸다.¹⁾ 『內經』에서도 선천 적으로 稟賦한 요소에 따라 형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²⁾ 氣候 · 氣象 · 지리 等 外部環境要素가 인체의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쳐 形象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形 象'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사람의 생김새와 상태'라는 뜻이 다. 즉 사물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이 자연 그대로 外部로 드러나 는 모든 發顯象을 말한다. '形'은 사물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형태 를 뜻하고, '象'은 사물에 內在한 본질을 뜻하며 징조로 나타난 다. 우리가 환자를 진찰하여 形 · 色 · 脈 · 症을 합일시켜서 病理

와 처방을 구할 때⁴⁾ 형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형상 이 다르면 인체에 내재된 본질도 다르며, 또 전통적으로 한의학 에서는 觀形察色을 통하여 從外知內하는 望診을 매우 중요시 여 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인체의 형상론적 관점을 참고하면 임상에서 이 론과 실재를 더욱 합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 하였다. 이 研究는 『內經』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문헌을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본 론

'形象醫學'이란 自然人的 形象을 보고 그 속에 內在된 法則 을 摘示하여 누구나 認知할 수 있도록 글로 옮겨서 펼쳐 보인 것 이다. 즉 形象 관찰을 위주로 하여 人體의 精神氣血 · 五臟六腑 ·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산 2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ytleee@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접수 : 2002/03/26 · 수정 : 2002/04/16 · 채택 : 2002/05/27

1) 朴贊國, 臟象學, 成輔社, 1992, p. 2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陰陽二十五人〉, 〈通天〉外 여러 곳.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六節藏象論〉, 〈異法方宜論〉
4) 大韓傳統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芝山出版社, 1997, p. 머릿말

外形·六氣와 雜病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病理와 治法을 구하여 疾病을 治療하고 豫防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河圖와 洛書는 天地自然의 內在된 法則을 形象[圖書]으로 펼쳐놓은 것인데 이러한 形象 研究는 醫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리와 병리가 발현되는 형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內經』에서 논술한 형상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陰陽五行論·藏象論·經絡學說·運氣論·體質論 등의 편제에 맞추어 考察하였다.

1. 形象의 정의

‘形象’이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자연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發顯象을 말한다. 이것은 形과 象으로 나뉜다. 여기서 形이란 사물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형태를 뜻하고, 象이란 事物에 內在한 本質을 뜻하며 徵兆로 나타난다. 따라서 ‘形象’이란 ‘물건이나 사람의 생김새와 상태’라는 뜻이다.⁵⁾

『周易·繫辭上傳』에서는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顯矣”⁶⁾라고 했고,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⁷⁾고 했으며, 韓⁸⁾은 우주 간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形으로서 體를 이루고 있는데 그 體는 形에 속하므로 확연히 나타나지만 象은 形속에 숨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象이란 징조나 기미다. 따라서 象이란 形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形과 象이란 현실적으로는 異質의인 陰性과 陽性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그 本質을 따져보면 一本體의 兩面性에 불과하다.⁹⁾¹⁰⁾¹¹⁾ 12)고 하였다. 이와 같이 形象이란 天의 象과 地의 形이 교합하여 생긴 ‘사물의 생김새와 상태’를 뜻한다. 우주 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形과 象의 分合作用을 통하여 변화하고 있다. 形은 형태로 발현되므로 파악하기 쉽고, 象은 징조나 기미로 나타나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인체와 형상

『素問·六微旨大論』¹³⁾에서 “天氣는 위에 자리하고 地氣는 아래에 자리하는데 天地의 氣가 맞닿는 곳에서 사람이 생겨났고 萬物 또한 생겨났다”라고 하였고, 『素問·寶命全形論』¹⁴⁾에서 “하늘은 위에서 덮고 땅은 아래에서 싣고 있어 만물이 모두 갖추어지는데 사람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고 하여 天氣가 하강하고 地氣가 상승하여 두 氣가 만나는 곳에서 萬物이 形象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靈樞·邪客』¹⁵⁾과 『東醫寶鑑·身形臟腑論』¹⁶⁾에서는 天地의 形象

과 人體의 形象을 相應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大宇宙의 形象대로 小宇宙인 人體가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素問·五常政大論』¹⁷⁾에서는 “天氣[司天의 氣]는 色을 제약하고 地氣[在泉의 氣]는 形體를 제약한다(天制色, 地制形)”고 하였다. 韓은 “사람에게 있어서 肉體의인 動靜은 形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動靜은 象으로 나타난다”¹⁸⁾고 했다. 그리고 인체의 生成에 대해서 『東醫寶鑑·身形門·胎孕之始』¹⁹⁾에서는 “‘聖惠方’에 天地의 精氣는 萬物의 形體가 된다. 아버지의 精氣는 魂이 되고 어머니의 精氣는 魄이 된다”고 했으며, <小兒門·臟腑生成條>²⁰⁾에서는 “대개 임신 1개월의 胎兒는 흰이슬[白露]과 비슷하고...또 임신 3개월에 먼저 오른쪽 腎이 생기면 남자가 되는데 陰이 陽을 싸고 있고, 먼저 왼쪽 腎이 생기면 女子가 되는데 陽이 陰을 싸고 있다. 그 다음 腎은 脾를 생기게 하고, ...자기를 이기는 것을 생기게 한다. 腎은 水에 속하므로 五臟은 陰이 된다. 다음으로 心은 小腸을 생기게 하고, ...자기가 이기는 것을 생기게 한다. 小腸은 火에 속하므로 六腑는 陽이 된다. 그 다음 三焦가 八脈[奇經八脈]을 생기게 하고, 八脈이 十二經脈을 생기게 하며, ...大穴은 84000개의 털구멍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귀·눈·코·입·피 등 人體의 모든 부분을 다 생기게 한다”라고 하였다. 총괄하면 사람은 하늘[父]의 氣와 땅[母]의 氣가 교합되어 생성되는데 天人相應의 原理로 形象이 이루어지며 萬物 중에서도 가장 귀한 存在가 된다. 또한 人體의 生成과정은 보면 父와 母의 精氣가 교합한 후에 精氣神血의 4대 요소가 갖추어지고, 이것이 個體의 특성에 따라 五臟六腑를 형성하면, 臟腑에 따라 系統性을 이루며 經絡을 형성하고, 經絡이 만들어지면 皮肉筋骨脈, 耳目口鼻 등 모든 外形을 만들어 완성된 통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의 형상을 관찰할 때는 天人相應의 原理를 응용하여야 한다. 보통 인체의 形象에 있어서 形은 肉體의 動靜, 肥瘦, 長短 등 形體를 爲主로 나타나고, 象은 精神의 動靜, 色, 氣勢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5) 上揭書, 『靈樞·邪客』 p. 298

“天圓地方, 人頭圓足方, 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臟. 天有六律, 人有六腑. 天有冬夏, 人有寒熱. 天有十日, 人有手十指. 辰有十二, 人有足十指. 莖垂以應之, 女子不足二節. 以抱人形. 天有陰陽, 人有夫妻. 歲有三百六十五日, 人有三百六十節. 地有高山, 人有肩膝. 地有深谷, 人有腋脇. 地有十二經水, 人有十二經脈. 地有泉脈, 人有衝氣. 地有草實, 人有毫毛. 天有晝夜, 人有臥起. 天有列星, 人有牙齒. 地有小山, 人有小節. 地有山石, 人有高骨. 地有林木, 人有筋脈. 地有聚邑, 人有鬚肉. 歲有十二月, 人有十二節. 地有四時不生草, 人有無子. 此人與天地相應者也.”

16)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1 “孫真人曰, 天地之內, 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行, 人有五臟, 天有六極, 人有六腑, 天有八風, 人有八節, 天有九星, 人有九竅, 天有十二時, 人有十二經脈, 天有二十四氣, 人有二十四歲, 天有三百六十五日, 人有三百六十五骨節, 天有日月, 人有眼目, 天有晝夜, 人有寤寐, 天有雷電, 人有喜怒, 天有雨露, 人有涕泣, 天有陰陽, 人有寒熱, 地有泉水, 人有血脈, 地有草木, 人有毛髮, 地有金石, 人有牙齒,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17) 裘素哲, 今釋 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627 <五常政大論>

18)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杏林出版, 1985, p. 19

19) 許浚, 東醫寶鑑(內景篇), 大星文化社, 1992, p. 6 “聖惠方曰,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 父之精氣爲魂, 母之精氣爲魄...”

20) 上揭書, p. 1006 “夫一月之孕有白露之稱, 二月之胚有桃花之譬, 及其三月則先生右腎而爲男, 陰包陽也, 先生左腎則爲女, 陽包陰也, 其次腎生脾, ...以生其勝已者, 腎屬水, 故五臟由是爲陰, 其次心生小腸, ...以生其已勝者, 小腸屬火, 六腑有是爲陽, 其次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大穴生八萬四千毛竅則耳目口鼻百骸之身, 皆備矣”

5) 大漢韓辭典編輯室編, 教學大漢韓辭典, 教學社, 1998

6)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下), 大有學堂, 1966, p. 1341 <繫辭上傳>

7) 裘素哲, 今釋 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545

8) 韓東錫 韓醫師. 著譯: 『宇宙變化的 原理』, 『東醫壽世保元註釋』 등이 있다

9)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杏林出版, 1985, p. 145

10)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杏林出版, 1985, p. 145

11) 上揭書, p. 37

12) 上揭書, p. 135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44 “故曰 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

14) 上揭書, p. 97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3. 形象을 봐야하는 理由

1) 形象이 다르면 인체에 내재된 본질도 다르다.

『素問·五常政大論』²¹⁾에서 五行의 특성을 띠고 태어난 鱗, 毛, 羽, 裸, 介甲의 形象을 갖은 모든 동물이 天地運氣에 따라 盛衰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靈樞·陰陽二十五人』²²⁾에서는 “대체로 木火土金水形人은 다시 二十五 가지로 변화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稟賦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五行이론에 근거하여 五色과 五음을 결합하여 이십오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어 그들의 피부색, 체형(頭의 大小, 肩의 大小, 얼굴의 형태, 手足의 상태 등), 성격과 계절 적응력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手足三陽經脈이 인체 上下部를 순행할 때의 氣血盛衰 변화에 근거하여 形과 色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각 유형의 相異한 특징에 맞는 치료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²³⁾ 또 『靈樞·通天』²⁴⁾에서는 사람을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으로 나누어 그들의 意識과 성격적 특징을 기술하고 그 治療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과 陰陽氣血의 다소는 모두 稟賦가 서로 다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 『東醫寶鑑·身形臟腑圖』²⁵⁾에서 사람의 形色과 臟腑가 다름에 따라 治法이 다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萬人萬色한 이유는 사람마다 출생의 조건과 살아가는 環境與件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天地의 氣가 交合되면서 만물이 각각각색으로 나타나듯이 사람도 父精母血이 交合되는 편차에 따라 형상이 각양각색으로 태어나며 또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사람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인체에 내재된 본질과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다르므로 치법도 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의학에서는 “從外知內”하는 원리에 따라 望診을 중요시 함.

『靈樞·本藏』²⁶⁾에 “밖으로 발현된 形象을 보고 내부 장기의 병든 곳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²⁷⁾에서는 오장을 중심으로 체내와 체외를 연결시켜 내장과 형체의 관계, 內臟 상호간의 기능관계, 內臟과 四時의 상응관계 등을 논술하였다. 『素問·玉機真藏論』²⁸⁾에서 “凡治病, 察其形色色澤”고 하였다. 『難經入門』²⁹⁾에서는 病을 診察하는데 四診 중에서도 望診을 으뜸으로 여겼고, 『醫學入門·觀形察色條』³⁰⁾에서도 제일 먼저 神氣色과 肥瘦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靈樞·師傳』³¹⁾에는 “<本藏>에서는 形體, 四肢, 關節, 脰肉에 근거하여

五臟六腑의 大小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靈樞·本藏』³²⁾에서는 臟腑와 體表조직의 상호연계와 人體에 대한 環境의 영향과 色澤, 皮膚紋理, 肌肉 등 외부로 나타나는 表現을 통하여 臟腑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을 예측하는 診斷방법을 논하였다. 이와 같이 外部로 드러난 形象을 근거로 望診을 통하여 인체의 변화를 관찰하면 인체 內의 臟腑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六慾七情으로 변화하는 象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3) 醫師의 診斷과 治療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한다.

『素問·寶明全形論』³³⁾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 첫째 精神을 다스려야 하고, 둘째 몸을 修養해야 하며, 셋째 약물의 정확성을 알아야 하고, 넷째 돌침(砭石)의 크기를 정하여 질병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해야 하며, 다섯째 臟腑氣血의 진단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素問·移精變氣論』³⁴⁾에서 “移精變氣란 某種의 치료방법을 운용하여 환자의 精神을 변화시키고 逆亂한 氣機를 조정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不問診斷 內 觀形察色과 診脈을 통하여 환자의 불편한 곳을 먼저 問診하여 不特定한 病증을 특정화하면 환자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고, 특히 소아들처럼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진단법이 된다. 이렇게 自然 그대로 外部로 발현된 形상을 관찰하면 인체 내부에 내재된 精氣神血과 五臟六腑, 六慾七情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진단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인체의 변화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반드시 形象을 참고해야 한다.

4.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형상의 분류

1) 陰陽論과 形象

『素問·陰陽應象大論』³⁵⁾에 “陰陽이란 天地의 規律[道]이고, 만물의 큰 틀[綱紀]이며, 변화의 父母이고, 살생의 근본이며, 神明의 府이다” 라고 하였고, 『周易』³⁶⁾에서는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으니 八卦가 吉하고 凶함을 定하고 吉하고 凶함이 큰 업적을 낳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陰陽으로 사람의 形象분류에 응용할 수 있다. 形象을 大別하면 性別을 위주로 한 男女구분과 陰陽氣의 虛盛에 따른 陰盛陽虛形과 陽盛陰虛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兩儀가 四象으로 分派하 듯이 사람을 四象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四象醫學에서 사람을 太陰人·少陰人·少陽人·太陽人의 四象으로 분류하듯이 形象醫學에서는 人身의 4大根本 요소인 精氣神血을 四象으로 분류하여 精科·氣科·神科·血科로 나누고, 木火金水의 속성을 띤 動物類로 4구분하여 魚類·鳥類·走類·甲類³⁷⁾ (體質論 참조)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56~257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75 “是故五形之人二十五變者, 衆之所以相異者是也.”
 23) 喪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4, p. 463 <陰陽二十五人>
 24) 上揭書, p. 524 <通天>
 25) 許從, 東醫寶鑑(內景篇), 大星文化社, 1992, p. 6 “朱丹溪曰,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 而況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形色既殊, 臟腑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5 “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
 27) 喪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122 <六節藏象論>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75 <玉機真藏論>
 29) 崔昇勳, 難經入門, 法仁文化社, 1998, p. 287 “望而知之, 謂之神, 聞而知之, 謂之聖, 問而知之, 謂之工, 切脈而知之, 謂之巧.”
 30) 李樹,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89, p. 104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64 “本藏以身形支節肌肉, 候五臟六腑大小焉.”
 32) 喪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4, p. 360
 33) 上揭書, p. 263 “一曰治神, 二曰知養身, 三曰知毒藥爲真, 四曰制砭石大小, 五曰知臟腑血氣之診.”
 34) 上揭書, p. 151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36)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 大有學堂, 1996, p. 1404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37)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 1990, p. 150

로도 분류한다. 그리고 人體의 形象을 觀察할 때 上下·左右·前後·表裏³⁸⁾의 8면적 관찰과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黑白·肥瘦·剛柔·長短으로 形象을 구분하여 臨床에 응용하고 있다.

(1) 陰盛陽虛形, 陽盛陰虛形

표 1.39) 『內經』에서 陽盛陰虛와 陰盛陽虛

| | 陽盛陰虛 | 陰盛陽虛 |
|-----------|----------------------------|---------------------------|
| 素問·陰陽應象大論 | 陽勝則身熱, 陰理閉, 陽勝則陰病, 陽病治陰 | 陰勝則身寒, 汗出身常清, 陰勝則陽病, 陰病治陽 |
| 素問·病論 |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陰虛則陽盛, 陽盛則熱 | 陽虛而陰盛, 陰實則陽虛, 陰勝則寒 |
| 素問·調經論 |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陽盛生外熱, 陰虛生內熱 | 陽虛則外寒, 陰盛則內傷, 陰盛生內寒 |
| 靈樞·根結 | 陽氣盛而陰氣衰, 陰虛而陽盛 | 陰盛而陽虛, 陰氣盛而陽氣衰 |
| 靈樞·終始 | 陰虛而陽盛, 先補其陰, 後瀉其陽而和之 | 陰盛而陽虛, 先補其陽, 後瀉其陰而和之 |
| 靈樞·通天 |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少陽之人, 多陽少陰 |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少陰之人, 多陰少陽 |

표 2.40) 『內經』에서 陰陽과 人體部位와 機能

| | 陽 | 陰 |
|-----------|-----------------------------------|-----------------------------|
| 素問·金匱真言論 | 外, 背, 府者(六腑), 夏秋病, 心肺 | 內, 腹, 藏者(五臟), 冬春病, 肝腎 |
| 素問·陰陽應象大論 | 躁[動], 氣[象], 天上竅, 四肢, 肢理, 火, 外, 東南 | 靜, 形, 地下竅, 六腑, 五臟, 水, 內, 西北 |
| 素問·陰陽離合論 | 天, 日 | 地, 月 |
| 素問·陰陽別論 | 三陽在頭 | 三陰在手 |
| 素問·太陰陽明論 | 三陽經, 六府, 喉, 陽受風氣 | 三陰經, 五藏, 咽, 陰受濕氣 |
| 素問·陽明脈解論 | 四支 | |
| 素問·病論 | 風者陽氣 | 寒者陰氣也 |
| 素問·天元氣大論 | 剛 | 柔 |
| 靈樞·邪氣藏府病形 | 諸陽會皆在於面 | |
| 靈樞·本神 | 病在上 | 病在下 |
| 靈樞·經水 | 天, 腰以上 | 地, 腰以下 |
| 靈樞·口問 | 上, 寤 | 下, 瞑 |
| 靈樞·陰陽繫日月 | 天, 日, 腰以上, 手, 火, 上 | 地, 月, 腰以下, 足, 水, 下 |
| 靈樞·刺節真邪 | 蒼 | 素 |

이와 같은 『內經』의 자료와 『東醫寶鑑』의 여러 條門에 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陰陽觀에 따라 임상에 적용하면 <표 3>처럼 陰盛陽虛形, 陽盛陰虛形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陰盛陽虛와 陽盛陰虛 形象의 比較

| | 陽盛陰虛形 | 陰盛陽虛形 |
|-----------|--------------------------|-------------------------|
| 1. 얼굴 | 側面발달 | 前面발달 |
| 2. 몸과 사지 | 四肢발달 | 몸뚱발달 |
| 3. 動靜 | 動 | 靜 |
| 4. 寒熱 | 熱 | 寒 |
| 5. 손가락 | 虫爪 | 鷹爪 |
| 6. 五官 集散 | 散 | 集 |
| 7. 生殖器 | 包莖(經早) | 包莖(經遲) |
| 8. 肌肉筋骨 | 筋骨발달 | 肌肉발달 |
| 9. 肥瘦黑白 | 瘦黑 | 肥白 |
| 10. 燥濕 | 燥 | 濕 |
| 11. 圓方 | 方 | 圓 |
| 12. 天垂地積象 | 天垂象 | 地積象 |
| 13. 病理 | 陰虛, 血虛, 熱證, 鬱火, 風熱燥, 胃病多 | 陽虛, 氣虛, 寒證, 寒濕, 濕痰, 脾病多 |

(2) 男女의 形象

『周易·繫辭傳』⁴¹⁾에서 “乾의 道는 男子를 이루고 坤의 道는 女子를 이루니...”라 했으며, 『周易·說卦傳』⁴²⁾에서 “乾은 하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일컫고, 坤은 땅이기 때문에 어머니라 일컬으며, 震은 첫 번째 구해서 男子를 얻었기 때문에 長男이라 이르고 巽은 첫 번째 구해서 女子를 얻었기 때문에 長女라 이르고, 坎은 두 번째 구해서 男子를 얻었기 때문에 中男이라 이르고, 離는 두 번째 구해서 女子를 얻었기 때문에 中女라 이르고...”라고 했으며, 『周易·風火家人』⁴³⁾에서는 “男子와 女子가 안과 밖으로 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라고 했다. 또 『素問·玉版論要』⁴⁴⁾에 “病色은 얼굴의 上下 左右에 나타나는데 각각 특징이 있다. 위로 오르는 것은 逆이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從이다. 女子는 病色이 우측에 나타나면 逆이고, 좌측에 나타나면 從이다. 男子는 病色이 좌측에 나타나면 逆이고, 우측에 나타나면 從이다. 변화하는데 重陽은 죽고 重陰도 죽는다”고 하였고, 『素問·大奇論』⁴⁵⁾에서 “모두 氣血이 막혀 생긴 偏枯[반신불수]다. 半身不遂가 男子는 좌측에 女子는 우측에 발생하더라도 말을 하고 혀가 움직이면 치료가 가능하며 30일이면 일어난다”고 했으며, 『靈樞·五色』⁴⁶⁾에서 “左右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大道라 하며 男女가 위치가 다른 것을 陰陽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難經·19難』⁴⁷⁾에서는 “男子의 尺脈은 항상 弱하고, 女子의 尺脈은 항상 盛한 것이 正常脈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男女를 『周易』에서는 乾道가 男子를 이루고 坤道가 女子를 이룬다고 하였고, 또 父인 乾卦와 母인 坤卦가 交合하여 三男三女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父母를 대신할 수 있는 男女는 中道를 이루는 坎卦인 中男과 離卦인 中女로 보았다. 現象界에 發現되는 萬物은 純陽純陰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陰陽이 交雜되어 있다. 여기서 男子의 爻 구성을 살펴보면 男은 二陰一陽으로 구성되었고 女子는 二陽一陰으로 구성되었다. 陰陽에는 主客이 있다. 따라서 男子는 陰을 客으로 하고 陽을 主로 하며, 女子는 陽을 客으로 하고 陰을 主로 하고 있다. 이것은 『醫學入門』⁴⁸⁾의 後天圖인 坎卦와 離卦의 해설에 “離中虛眞陰 坎中滿眞陽”이라고 잘 나와 있다. 보통 事物을 관찰할 때 形體는 陰으로 氣象은 陽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男子는 二陰一陽이므로

38) 上揭書, p. 48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1)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 大有學堂, 1996, p. 1344 “乾道成男 坤道成女...”

42) 上揭書, p. 1468 “乾天也 故稱乎父 坤地也 故稱乎母 震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巽一索而得女 故謂之長女 坎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

43) 上揭書, p. 861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52 “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上爲逆, 下爲從, 女子右爲逆, 左爲從, 男子左爲逆, 右爲從. 易, 重陽死, 重陰死.”

45) 上揭書, p. 180 “...者偏偏枯, 男子發左, 女子發右, 不瘠舌轉, 可治, 三十日起.”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27 “能別左右, 是謂大道, 男女異位, 故曰陰陽.”

47) 崔昇勳, 難經入門, 法仁文化社, 1998, p. 128 “經言脈有逆順, 男女有常, 而反者, 何爲也? 然, 男子生於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於申, 申爲金, 陰也, 故男脈在關上, 女脈在關下, 是以男子尺脈恒弱, 女子尺脈恒盛, 是其常也. 反者, 男得女脈, 女得男脈也, 其爲病何如? 然, 男得女脈爲不足, 病在內, 左得之, 病則在左, 右得之, 病則在右, 離脈言之, 此之謂也.”

48) 李榘,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89, p. 18

形이 많고 象이 적고 女子는 二陽一陰으로 象이 많고 形이 적다고 볼 수 있다. 『內經』에서는 男女의 基本位置를 男左女右로 다르게 보았고, 『難經』에서는 男女의 脈象에 대하여 男上女下를 기본으로 보아 男女가 上下左右의 順逆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男陽女陰이라는 시각과 坎男離女라는 관점으로 男女를 陰陽順逆으로 파악하면 <표 4>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男女의 形象 비교

| | 男子 | 女子 |
|-----------|------------------------------|-------------------------------|
| 1. 形象 | 形위주 | 象위주 |
| 2. 耳目口鼻 | 耳鼻위주 | 目口위주 |
| 3. 八面 | 上左後表위주 | 下右前裏위주 |
| 4. 肥瘦 | 肥 | 瘦 |
| 5. 黑白 | 黑 | 白 |
| 6. 剛柔 | 剛 | 柔 |
| 7. 長短 | 長 | 短 |
| 8. 性命的 根本 | 腎위주(腎) | 乳房이주(胃) |
| 9. 圓方 | 方 | 圓 |
| 10. 頭編 | 頭大身小 | 身大頭小 |
| 11. 燥濕 | 燥 | 濕 |
| 12. 肩胛廣狹 | 肩胛廣狹 | 腎廣腎狹 |
| 13. 胸腹背腎 | 腹背위주 | 胸腎위주 |
| 14. 寒熱 | 汗出身寒冷(水) | 無汗身溫熱(火) |
| 15. 經脈 | 奇經八脈위주 | 12經脈위주 |
| 16. 氣勢 | 秋冬之象 | 春夏之象 |
| 17. 五官集散 | 發散위주 | 收集위주 |
| 18. 五臟六腑 | 五臟위주 | 六腑위주 |
| 19. 空竅 | 9구멍 | 10구멍 |
| 20. 病理 | 精氣虛, 陽病(空音), 肉體病, 陰陽病(房勞) | 血虛, 氣鬱, 陰病(음식), 精神病, 經帶胎產病 |

2) 五行論과 形象

韓⁴⁹⁾은 宇宙變化의 狀態는 陰陽五行論으로 연구하는데 여기서 陰陽論은 五行論의 基幹이고 五行論은 陰陽論의 枝葉이다. 太極이라는 統一體가 陰陽이라는 二氣運으로 갈라지며 이 陰陽은 다시 각각 分合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性質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것을 五行이라고 한다. 따라서 宇宙變化 運動을 具體적으로 보면 五行운동이고 抽象적으로 보면 陰陽운동이 된다고 하였다. 『靈樞·陰陽二十五人』⁵⁰⁾에 五行의 屬性에 따른 形象 특징이 잘 나와있고, 『內經』의 여러 篇에서 五行歸類에 따라 五行論을 人體에 응용하였다. 즉 五臟, 五體, 五官, 五華, 五色, 五志, 五液, 五臭, 五聲 등과 연계하여 從外知內하는 藏象論이 이것에 속한다.

3) 藏象論

藏象의 '象'은 形象이다. 體內에 있는 藏은 體外로 그 形象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藏象이라 한다.⁵¹⁾ '藏'이란 身體內部에 형태를 갖춘 조직기관을 가리키며, '象'이란 身體外部로 나타나는 각종 生理機能的 活動의 徵象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藏象論은 人體의 臟腑, 經絡, 形體, 官竅, 氣血津液에 대한 生理 病理기능을 연구하고 氣候, 氣象, 地理 등 外部環境要素가 人體의 생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시한다.⁵²⁾ 『東醫寶鑑』에서는 『內經』에 기재된 五臟의 物類가 잘 정리되어 있다.

(1) 五臟의 形象

① 面部에서 五臟의 관찰

『靈樞·五色』⁵³⁾에 얼굴에서 五臟과 六腑와 四肢의 狀態를 파악할 수 있도록 相應部位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 『靈樞·五閱五使』⁵⁴⁾에서는 五官과 五臟의 관계와 五臟의 病症을, 『素問·風論』⁵⁵⁾에서 五臟의 風症과 觀察部位를, 『素問·刺熱論』⁵⁶⁾에서는 病症과 色과 얼굴의 部位를 설명하였다. 표로 만들면 <표 5>과 같다.

표 5. 『內經』에서 面部의 五臟 觀察

| | 肝 | 心 | 脾 | 肺 | 腎 |
|------------|---------|-------|-------|---------|-------|
| 靈樞 五色 | 鼻柱骨 | 兩眼間 | 鼻頭 끝 | 兩眉間 | 頰骨內側 |
| 靈樞 五閱五使 | 눈 | 혀 | 입술 | 코 | 귀 |
| 素問 風論 | 눈 밑 靑色 | 입이 赤色 | 코가 黃色 | 眉上 白色 | 피부 黑色 |
| 素問 刺熱 | 左側 볼 赤色 | 이마 赤色 | 코 赤色 | 右側 볼 赤色 | 턱 赤色 |

『東醫寶鑑』⁵⁷⁾에서도 五臟과 六腑와 四肢의 部位에 대하여 여러 책을 引用하여 얼굴에 相應시켜 놓았는데 <표 6>과 같다.

표 6. 面部와 五臟 配屬

| | 肝 | 心 | 脾 | 肺 | 腎 |
|-------|-----------|------------|-----------|-----------|-------------|
| 靈樞·五色 | 鼻骨 部位 | 山根 部位 | 코 끝 部位 | 眉間 部位 | 下眼瞼 아래부위 |
| 醫學入門 | 左頰 屬肝 | 額爲天庭 屬心 | 鼻居中 屬脾 | 右頰 屬肺 | 頰爲地閣 屬腎 |
| 丹溪心法 | 左頰 肝之部 | 額爲 心之部 | 鼻爲 脾之部 | 右頰 肺之部 | 頰爲 腎之部 |
| 醫學綱目 | 鼻骨 部位 | 山根 部位 | 鼻骨 끝 사이 | 眉間 部位 | 準頰 部位 |

이와 같이 얼굴의 形象을 보고 각 部位에 相應하는 臟腑의 病을 診察할 수 있다.

52) 上揭書, p. 11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27 “庭者, 首面也. 厥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狹大腸者, 腎也. 當腎者, 脾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額者, 肩也. 額後者, 胃也. 腎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膈乳也. 挾額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脛也. 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

54) 上揭書, p. 186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唇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黃帝曰, 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臟. 故肺病者, 喘息鼻脹. 肝病者, 眇眇. 脾病者, 脣黃. 心病者, 舌卷短. 額赤, 腎病者, 額與頰黑.”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57~158 “肺風之狀,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診在目下, 其色靑. 脾風之狀,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診在頰上, 其色黑. 胃風之狀, …診形瘦而腹大”

56) 上揭書, p. 119 “肝熱病者左頰先赤, 心熱病者額先赤, 脾熱病者鼻先赤, 肺熱病者右頰先赤, 腎熱病者頰先赤”

57) 許浚, 東醫寶鑑(內景篇), 大星文化社, 1992, p. 280 “額爲天庭屬心, 頰爲地閣屬腎, 鼻居中屬脾, 左頰屬肝, 右頰屬肺, 此五臟部位也. 察其色以辨其病…(入門) 上揭書(雜病篇), p. 16 “自額而下關上, 屬首咽喉之部分也, 自關中循鼻而下鼻端, 屬肺心肝脾腎, 五臟之部分也, 自目內眥挾鼻而下至承漿(穴名), 屬脾胃大小腸膀胱六腑之部分也, 自額而下頰, 則屬肩臂手之部分也, 自牙車而斜下頰, 屬股脛脛足之部分也.<綱目> 額爲心之部, 鼻爲脾之部, 左頰肝之部, 右頰肺之部, 頰爲腎之部(丹心)”

49)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出版, 1985, p. 50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75 “是故五形之人二十五變者, 衆之所以相異者是也.”

51) 朴贊國, 臟象學, 成輔社, 1992, p. 25

② 五臟의 外候(大小·高低·剛柔·正偏)

『靈樞·師傳』⁵⁸⁾에서는 肝은 눈으로, 心은 검상돌기로, 脾는 입술과 혀로, 肺는 어깨로, 腎은 귀로 나타난다고 했고, 『靈樞·本藏』⁵⁹⁾에서는 皮膚의 色과 腠理의 상태와 그 外候로 臟腑의 大小·高低·剛柔·正偏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難經·16難』에서는 五臟의 內證과 外證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 內部에 있는 五臟의 狀態는 人體의 外부로 表現되는데 그 形色의 發顯象을 보고 五臟의 疾病 狀態를 알 수 있다. <표 7>은 이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五臟의 外候

| 臟腑 | 靈樞師傳 | 靈樞·本藏 | 難經·16難 |
|----|---------------------------|--|-----------------------------|
| 肝 | 肝者,主爲將,使之候外,欲知堅固視目大小 | ①青色小理者肝小,肝小則藏安,無筋下之病 ②癰理者肝大,肝大則瀉胃迫咽,舌筋中,且筋下痛 ③廣胸反駁者肝高,肝高則上支貢,切筋悅,爲息責 ④合筋兇駁者肝下,肝下則瀉胃,筋下空,易受邪 ⑤胸筋好者肝堅,肝堅則藏安,難傷 ⑥筋骨弱者肝脆,肝脆則善病消癯,易傷 ⑦膺背好相得者肝端正,肝端正則和利難傷 ⑧筋骨偏學者肝偏傾也,肝偏傾則筋下痛也 | 外證,善潔面青善怒 內證,膺左有動氣按之牢若痛 |
| 心 | 五臟六府,心爲之主,缺盆爲之道,髭骨有餘,以候關肝 | ①赤色小理者心小,心小則易傷以憂 ②癰理者心大,心大則憂不能傷 ③無筋肝者心高,心高則滿於肺中,愧而善忘(愧與悶同),難開以言 ④關肝小短學者心下,心下則易傷於寒,易恐以言 ⑤關肝長者心堅,心堅則藏安守固 ⑥關肝弱小以薄者心脆,心脆則善病消癯,熱中 ⑦關肝直下不學者心端正,心端正則和利難傷 ⑧關肝倚一方者心偏傾也,心偏傾則操持不一,無守司也 | 外證,血赤口乾善笑 內證,膺上有動氣按之牢若痛 |
| 脾 | 脾者,主爲衛,使之迎糧,視腎舌好惡,以知吉凶 | ①黃色小理者脾小,脾小則藏安,難傷于邪 ②癰理者脾大,脾大則苦淡眇,而痛不能疾行 ③揭腎者脾高,脾高則筋引手筋而痛 ④腎下縱者脾下,脾下則下加於大腸,藏苦受邪 ⑤腎堅者脾堅,脾堅則藏安難傷 ⑥腎大而不可者脾脆,脾脆則善病消癯 ⑦腎上下好者脾端正,脾端正則和利難傷 ⑧腎偏學者脾偏傾也,脾偏傾則善滿善脹也 | 外證,面黃善噦善思善味 內證,當膺有動氣按之牢若痛 |
| 肺 | 五臟六腑者,肺爲之蓋,巨肩陷咽,候見其外 | ①白色小理者肺小,肺小則少飲不病喘喝 ②癰理者肺大,肺大則多飲,善病胸痺,喉痺,逆氣 ③巨肩反膺陷喉者肺高,肺高則上氣,肩息咳 ④合腋張筋者肺下,肺下則氣貢迫肺,善筋下痛 ⑤好肩背厚者肺堅,肺堅則不病,破上氣 ⑥肩背薄者肺脆,肺脆則善病消癯,易傷 ⑦背膺厚者肺端正,肺端正則和利難傷 ⑧筋骨偏學者肺偏傾也,肺偏傾則胸偏痛也 | 外證,面白善噦悲愁不樂欲哭 內證,膺右有動氣按之牢若痛 |
| 腎 | 腎者,主爲外,使之遠聽,視耳好惡,以知其性 | ①黑色小理者腎小,腎小則藏安難傷 ②理者腎大,腎大則善病腰痛,易傷於邪 ③耳高者腎高,腎高則善背,痛不可以仰 ④耳後陷者腎下,腎下則腰尻痛或爲狐疝 ⑤耳堅者腎堅,腎堅則不病,腰背痛 ⑥耳薄不堅者腎脆,腎脆則善病消癯 ⑦耳好前居牙車者腎端正,腎端正則和利難傷 ⑧耳偏高者腎偏傾也,腎偏傾則善腰尻痛也 | 外證,面黑善恐數欠 內證,膺下有動氣按之牢若痛 |

(2) 六腑의 형상

① 面部에서 六腑 形象- 五臟形象인 <표 6>을 참조

② 六腑의 外候

『靈樞·師傳』⁶⁰⁾에서 胃는 뼈대·목·기슴으로, 大腸은 코의 길이로, 小腸은 人中과 입술의 두께로, 膽은 눈 밑의 眼胞로, 膀胱은 콧구멍으로, 三焦는 鼻柱骨의 湧기로 각각 六腑의 狀態를 豫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五官

『靈樞·五閱五使』⁶¹⁾에서 “五官은 五臟의 氣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五官의 狀態를 파악하면 內部臟器의 疾病을 판단할 수 있다.

표 8. 62) 五官과 五臟의 관계

| | 目 | 舌 | 口 | 鼻 | 耳 |
|------|----------|--------------|----------|------------|-----------|
| 靈樞 | 目者, 肝之官也 | 舌者, 心之官也 | 口者, 脾之官也 | 鼻者, 肺之官也 | 耳者, 腎之官也 |
| 五閱五使 | 肝病者, 皆青 | 心病者, 舌卷短, 顛赤 | 脾病者, 腎黃 | 故肺病者, 喘息鼻脹 | 腎病者, 顛與頰黑 |

(4) 五色

『靈樞·五色』⁶³⁾에 “五色이 얼굴의 일정한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五色의 浮沈, 澤天, 散搏, 上下를 잘 관찰하면 病邪의 淺深, 豫後, 遠近, 病處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東醫寶鑑·面門』⁶⁴⁾에서도 “색의 狀態를 관찰하여 疾病의 狀態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皮膚의 五色을 관찰할 때는 주로 얼굴에서 관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明堂인 코에서 위주로 본다. 그 외에 눈에서도 五色을 관찰한다.

표 9. 65) 五色과 五臟의 關係

| | 青 | 赤 | 黃 | 白 | 黑 |
|------|------------|------------------|-----------------------|-------------|------------|
| 色과 臟 | 靑爲肝 | 赤爲心 | 黃爲脾 | 白爲肺 | 黑爲腎 |
| 顔色 | 靑白者, 少熱氣 | 黃赤者, 多熱氣 | 黃赤者, 多熱氣 | 靑白者, 少熱氣 | 黑色者, 多血少氣 |
| 目之色 | 靑在肝 | 赤色者, 病在心 | 黃在脾 | 白在肺 | 黑在腎 |
| 明堂之色 | 靑黑爲痛, 痛甚爲擊 | 黃赤爲熱, 赤甚爲血, 痛甚爲擊 | 黃赤爲風, 黃而靑潤爲膿 | 白爲寒, 寒甚爲皮不仁 | 靑黑爲痛, 痛甚爲擊 |
| 其他 | 肝熱者, 色蒼而爪枯 | 心熱者, 色赤而絡溢 | 脾熱者, 色黃而肉蠕動, 目黃者, 曰黃疸 | 肺熱者, 色白而毛敗 | 腎熱者, 色黑而齒槁 |

(5) 五體

『靈樞·五色』과 『素問·五藏生成』⁶⁶⁾에서 五臟과 五體가 合한다고 하였고, 『靈樞·官能』⁶⁷⁾에서는 “皮膚의 寒溫潤澀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65

59) 上揭書, p. 213~214

60) 上揭書, p. 165 “六府者, 胃爲之蓋, 廣骸, 大頸, 張胸, 五臟乃容, 鼻隧以長, 以候大腸, 膺厚, 人中長, 以候小腸, 目下果大, 其膽乃橫, 鼻孔在外, 膀胱瀰世, 鼻柱中央起, 三焦乃約, 此所以候六府者也”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86 “五官者, 五臟之閱也”

62) 上揭書, p. 186 <五閱五使>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27 “五色各見其部, 察其浮沈, 以知淺深, 察其澤天, 以觀成敗, 察其散搏, 以知遠近, 視色上下, 以知病處, 積神於心, 以知往今.”

64) 許浚, 東醫寶鑑(外形篇), 大星文化社, p. 280 “察其色以辨其病”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66 <素問·平人氣象論>, p. 166 <素問·痿論>, p. 227~228 <靈樞·五色>, p. 283 <靈樞·五音五味>, p. 309 <靈樞·論疾診尺>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9 <素問·五藏生成>, p. 228 <靈樞·五色> “肝合筋, 心合脈,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

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病苦를 알 수 있다”고 했으며, 『靈樞·大惑論』⁶⁸⁾에서는 皮膚 分肉상태와 腸胃의 大小와 寤寐의 상호기전을 설명하였고, 『靈樞·經脈』⁶⁹⁾에서는 “經脈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으나 그 虛實은 氣口脈을 통하여 알 수 있고 外部에 보이는 모든 脈은 絡脈이다” 라고 했으며, 『素問·脈要精微論』⁷⁰⁾에서 “무릎은 筋의 府로 屈伸하지 못하고 걸을 때 몸이 앞으로 숙여져 지팡이에 의존하는 것은 筋이 쇠약해진 것이다” 고 했으며, 『靈樞·五變』⁷¹⁾에서 觀骨의 크기로 뼈의 대소를 살핀다고 하였고, 『靈樞·衛氣失常』⁷²⁾에서는 五體의 病을 살필 수 있는 發顯象에 대해서 논술했었다. 이와 같이 內部에 있는 五臟은 밖으로 드러난 五體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皮肉脈筋骨의 상태를 파악하면 臟腑와 經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때 皮膚는 주로 全身에서 살피지만 특히 尺部를 관찰하고, 肉의 상태를 볼 때는 魚際 부위와 팔뚝과 장단지의 肌肉 상태를 보고⁷³⁾, 脈은 눈과 寸口와 겹으로 드러난 혈관으로 보고, 筋은 膝關節과 모든 關節에서 살피고, 뼈는 觀骨과 허리에서 주로 관찰한다.

표 10. 五體와 五臟의 관계

| | 筋(肝) | 脈(心) | 肉(脾) | 皮(肺) | 骨(腎) |
|--------|--|--|-----------------------------|-------------|--------------------------------------|
| 靈樞五色 | 肝合筋 | 心合脈 | 脾合肉 | 肺合皮 | 腎合骨 |
| 靈樞衛氣失常 | 目色青黃赤白黑者病在筋。 | 榮衛濡然者病在血氣。 | 胥青黃赤白黑者病在肌肉。 | 色起兩眉薄澤者病在皮。 | 耳焦枯受塵垢者病在骨。 |
| 靈樞九鍼論 | 久行傷筋 | 久視傷血 | 久坐傷肉 | 久臥傷氣 | 久立傷骨 |
| 其他 | 膝者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僂矣。手足屈而不伸者, 其病在筋。諸筋者皆屬於筋。 | 五脉應象, 肝脉絃, 心脉鉤, 脾脉代, 肺脉毛, 腎脉石。諸脉者皆屬於目。 | 脾應肉, 肉腠堅大者, 胃厚, 胥舌者, 肌肉之本也。 | 諸氣者皆屬於肺。 | 骨者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僂矣。伸而不屈者, 其病在骨。 |

(6) 五華

『素問·五藏生成』⁷⁴⁾과 『素問·六節藏象論』⁷⁵⁾에서 五臟과 五華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素問·痿論』⁷⁶⁾에서는 五臟熱이 五華 부위에 나타나는 發顯象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내부의 五臟이 外部로 모습을 활짝 드러낸 모습인 爪, 面色, 脣, 毛, 鬚을 五榮이라 하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五臟 疾病을 診斷할 수 있다.

67) 『審皮膚之寒溫滑澀, 知其所苦』 537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43 “故腸胃大, 則衛氣行留久, 皮膚濕, 分肉不解, 則行遲, 留於陰也久, 其氣不消, 則欲臥, 故多臥矣。其腸胃小, 皮膚滑以緩, 分肉解利, 衛氣之留於陽也久, 故少眠焉。”
 69) 經脈者常不可見也, 其虛實也, 以氣口知之, 脈之見者, 皆絡脈也。 151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57 “膝者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僂矣。”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1 “觀骨者, 骨之本也。 觀大則骨大, 觀小則骨小”
 72) 上揭書, p. 255 “黃帝問於伯高曰: 何以知皮肉氣血筋骨之病也。 伯高曰: 色起兩眉薄澤者, 病在皮。 脣色青黃赤白黑者, 病在肌肉。 營氣濡然者, 病在血氣。 目色青黃赤白黑者, 病在筋。 耳焦枯, 受塵垢, 病在骨。”
 73) 許浚, 東醫寶鑑(外形篇), 大星文化社, 1992, p. 444 “脈者, 肉之標也, 謂謂肘膝後肉, 如塊者。”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9 <五藏生成>
 75) 上揭書, p. 36 <六節藏象論>
 76) 上揭書, p. 166 <痿論>

표 11. 五華와 五臟의 관계

| | 爪(肝) | 色(心) | 脣(脾) | 毛(肺) | 髮(腎) |
|---------|-------------|-------------|---------------------|-------------|-------------|
| 素問五藏生成 |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 心之合脉也, 其榮色也 | 脾之合肉也, 其榮脣也 |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
| 素問六節藏象論 | 心者, 其華在面 | 肺者, 其華在毛 |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其華在脣四白 | 肝者, 其華在爪 | 腎者, 其華在髮 |
| 素問痿論 | 肝熱者, 色蒼而爪枯 | 心熱者, 色赤而絡脉溢 | 脾熱者, 色黃而肉蠕動 | 肺熱者, 色白而毛敗 | 腎熱者, 色黑而齒枯 |

(7) 五志(魂神意魄志) 七情(怒喜思憂恐驚)

『素問·陰陽應象大論』⁷⁷⁾에서는 自然界와 相應하여 사람에게는 五臟이 있는데 五氣로 변화함으로써 喜怒哀憂이 생긴다고 하였고, 같은 篇⁷⁸⁾에서 五行에 따른 五志의 관계와 五臟 間의 관계와 五志 間의 相剋關係를 설명하였으며, 『素問·宣明五氣』⁷⁹⁾과 『靈樞·九鍼論』⁸⁰⁾에서는 五臟과 五志(魂神意魄志)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靈樞·本神』⁸¹⁾에서는 魂神意魄志思慮智에 대한 뜻을 논술했고, 같은 篇⁸²⁾에서 五臟에 따른 血脈營氣精 및 魂神意魄志의 관계와 五臟의 虛實에 따른 心身에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또 『素問·舉痛論』⁸³⁾에서는 九氣에 따른 氣의 기전과 그에 따른 病症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상태인 怒(肝), 喜(心), 思(脾), 悲(肺), 恐(腎)의 변화와 五臟이 간직하고 있는 五志 즉 魂(肝), 神(心), 意(脾), 魄(肺), 志(腎)가 外部에 나타나는 象으로써 病을 診斷할 수 있다. 이때 五志와 七情은 印堂 부위(兩眉間, 兩眉間) 色과 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8) 五聲

『素問·陰陽應象大論』⁸⁴⁾에 五行歸類에 따라 五臟과 五音과 五聲의 關係를 설명하였다. 『東醫寶鑑·聲音門』⁸⁵⁾에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故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傷陰, 暴喜傷陽。”
 78) 上揭書, p. 24 “...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在志爲憂, 憂傷肺, 喜勝憂。 ...在志爲恐, 恐傷腎, 思勝恐。”
 79) 上揭書, p. 92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33 “五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精志也。”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68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
 82) 上揭書, p. 69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脹漫不利。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 盈仰息。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臟不安。 必審五臟之病形, 以知其氣之虛實, 謹而調之也。”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46 “怒則氣上, 怒則氣逆, 甚則嘔血及殮世, 故氣上矣。 喜則氣緩,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悲則氣消, 悲則心係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恐則氣下,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寒則氣收,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 炅則氣泄, 炅則腠理開, 榮衛通汗大泄, 故氣泄。 驚則氣亂,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勞則氣耗, 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 思則氣結, 九氣不同,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편의상 문장을 조합하였다)
 84) 上揭書, p. 23~24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音爲宮, 在聲爲歌, ...在音爲商, 在聲爲哭, ...在音爲羽, 在聲爲呻”

“肝病은 소리가 슬프고 肺病은 促하며 心病은 雉하고 脾病은 慢하며 腎病은 沈하고 大腸病은 길고 小腸病은 短하며 胃病은 速하고 膽病은 淸하며 膀胱病은 微한 것이다. 金聲은 울리고 土聲은 탁하며 木聲은 길고 水聲은 淸하며 火聲은 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外部로 발현되는 音聲을 통하여 五臟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4) 經絡學說

經絡學說은 韓醫學의 기본이론 中 하나이다. 『靈樞·海論』⁸⁶⁾에서 “12經脈이 안으로는 臟腑에 속하고 밖으로는 肢節에 연결된다”고 했으며, 『靈樞·本藏』⁸⁷⁾에서는 “經脈은 氣血을 운행시킴으로써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營養하고 筋骨을 濡養하고 關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했고, 『靈樞·經別』⁸⁸⁾에서는 “대개 12經脈이란 사람이 생존하는 수단이고, 病이 형성되는 원인이며, 患者를 治療하는 수단이고, 疾病을 治癒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經絡이란 臟腑와 外部 器官을 연결하고 氣血을 끝없이 運行하여 외부 기관을 滋養하는 것으로 인체의 生理, 病理, 治療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⁸⁹⁾에서 “五臟에 疾病이 있으면 12原穴에 반영되므로…”라고 했으며, 『靈樞·邪客』⁹⁰⁾에서는 “肺와 心에 邪氣가 있으면 그 病氣가 양 팔꿈치 부위에 머물고, 肝에 邪氣가 있으면 그 病氣가 양 겨드랑이 부위에 머물며, 脾에 邪氣가 있으면 病氣가 양 넓적다리에 머물고, 腎에 邪氣가 있으면 그 病氣가 양 오금 부위에 머문다”라고 했고, 『素問·藏氣法時論』⁹¹⁾에 “肝病者는 양옆구리 아래가 아프고 少腹이 당기며…, 心病者는…양팔 안쪽이 아프고, 脾病者는…배가 부풀고…, 肺病者는…肩背가 아프고…, 腎病者는…大腹과 小腹이 아프며…”라 하여 經絡의 流注에 따른 臟腑와 外部器官과의 疾病關係를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絡은 인체 내 氣血運行的 通路로 表裏 上下를 연계하고 五臟六腑, 四肢百骸, 五官, 皮肉脈筋骨 등 각 방면을 연계하여 人體가 통일된 有機體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독특한 계통이며⁹²⁾ 生理, 病理, 診斷, 治療(鍼灸, 藥理)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⁹³⁾ 특히 『靈樞·經脈』⁹⁴⁾에서 설명했듯이 經脈은 體腔에 深入하여 五臟六腑에 連屬되어 일반적으로 外部에서 볼 수 없으므로 虛實은 氣口脈을 통하여 알고 外部에 보이는 絡脈은 일반적으로 體表에 많이 분포되어 經筋과 皮膚에 연계되어 있다.⁹⁵⁾ 따라서 經絡의 流注부위의 외부기관과 氣血의 성쇠에 따른 皮膚의 色澤, 毛髮, 氣勢 등의 形象을 관찰하여 診斷을 할 수 있다.

85) 許浚, 國譯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82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74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於肢節”

87) 上揭書, p. 213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88) 上揭書, p. 161 “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89) 上揭書, p. 13 “五臟有疾也 應出於十二原…”

90) 上揭書, p. 300 “肺心有邪 其氣留於兩肘, 肝有邪 其氣留於兩腋, 脾有邪 其氣留於兩髀, 腎有邪 其氣留於兩膕”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89 “肝病者, 兩脇下痛 引少腹…, 心病者…兩臂內痛, 脾病者…腹滿, 肺病者…肩背痛…, 腎病者…大腹, 小腹痛…”

92) 崔容泰 外, 鍼灸學上, 集文堂, 1988, p. 45

93) 上揭書, p. 48

94) 經脈者常不可見也, 其虛實也, 以氣口知之, 脈之見者, 皆絡脈也. 151

95) 崔容泰 外, 鍼灸學上, 集文堂, 1988, p. 59

(1) 六經에 대한 諸學說

臨床에서 經絡學說을 『傷寒論』과 연결하여 많이 응용하고 있다. 따라서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에 대한 諸家들의 學說을 먼저 살펴보겠다. 六經에 대한 대표적인 學說로는 經絡說, 臟腑說, 氣化說, 部位說, 六經地面說, 段階說, 生理系統說, 六病說 등이 있다. 본래 三陰三陽의 六經은 『內經』에서 經脈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는데 『傷寒論』에서는 病症分類名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十二經脈 개념만 가지고는 『傷寒論』에 논술된 病變기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六經의 본질에 대해 學者마다 각기 독자적인 개념을 주장한 것이다.⁹⁶⁾

① 經絡說(朱肱이 주창함): 六經病症의 발현이 經絡의 병리과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② 臟腑學說(李時珍이 주창함): 臟腑와 臟腑間의 表裏상합관계, 臟腑와 經絡간의 內外연계關係를 가지고 六經病症과 病機를 설명한 것이다.

③ 氣化說(張志聰이 주창함): 『素問·運氣篇』의 標本中氣說을 가지고 六經의 병리과정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六氣는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가 된다.

④ 部位說(方有執이 주창함): 邪氣가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皮膚, 肌肉, 心下, 胸脇, 腹部, 少腹 등의 六部位로 身體를 나누고 다시 臟腑經絡과 상합關係를 함께 묶어서 六經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或者는 아예 太陽은 項背, 陽明은 胸腹, 少陽은 胸脇, 太陰은 腹部, 少陰은 臍下, 厥陰은 少腹 및 胸脇 등을 주관한다고 六經部位說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⑤ 六經地面說(柯琴이 주창함): 部位說을 한층 더 세밀하게 여섯 區域의 地面을 나누어 六經에 배속하는 입장으로 經絡說을 배척하고 구체적으로 人體를 六分하였다.

이 외에 근래에 ⑥段階說, ⑦生理系統說, ⑧六病說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六經에 대한 여러 學說이 제기되었는데 臨床에서는 여러 화설을 잘 變通하여 應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 經絡과 毛髮

『靈樞·陰陽二十五人』⁹⁷⁾에서 25類形의 사람으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經絡의 氣血多少와 毛髮의 分布와 기타 人體에 나타나는 形色의 특징을 잘 설명하였고, 『素問·上古天真論』⁹⁸⁾에서는 年齡에 따른 毛髮의 생성변화를 말하였으며, 『東醫寶鑑·毛髮門』⁹⁹⁾에서는 머리카락과 눈썹과 수염이 각각 주관하는 五臟이 다르며 머리카락은 心臟, 눈썹은 肝臟, 턱수염은 腎臟과 각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腎이 주관하며 腎은 精을 간직한다고 했고, 또 머리카락은 血의 餘分이므로 脫毛와 潤澤의 有無와 색깔의 變化는 精과 血의 病變과 關係가 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人體의 皮膚 밖에 드러난 毛髮의 形象을 관찰하여 臟腑, 氣血, 經絡, 六氣 등의 辨證을 할 수 있다. <표 12 참조>

96) 文潯典 外, 傷寒論精解, 慶熙大學敎出版局, 1996, p. 10-14

9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74-276

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1

99) 許浚, 國譯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416

표 12. 經絡의 氣血多少와 毛髮과 人體 特徵

| | 上下 | 氣血多少 | 毛髮과 人體 特徵 |
|----------------|------|----------------------------|--------------------|
| 足 陽明 胃經 | 上 | 血氣盛 | 髭美長 |
| | | 血少氣多 | 髭短 |
| | | 氣少血多 | 髭少 |
| | | 血氣皆少 | 無髭, 兩吻多鬣 |
| | 下 | 血氣盛 | 下毛美長至胸 |
| | | 血少氣多 | 肉而善瘰 |
| 血多氣少 | | 下毛美短至臍, 行則善高舉足, 足指少肉, 足善寒, | |
| | 血氣皆少 | 無毛, 有則稀, 枯悴, 善痿厥, 足痺. | |
| 足 少陽 膽經 | 上 | 氣血盛 | 通髭美長 |
| | | 血少氣多 | 少髭 |
| | | 血多氣少 | 通髭美短 |
| | | 血氣皆少 | 無髭, 感於寒濕則善痺, 骨痛爪枯也 |
| | 下 | 血氣盛 | 脛毛美長, 外踝肥 |
| | | 血少氣多 | 脛毛少, 外踝皮薄而軟 |
| 血多氣少 | | 脛毛美短, 外踝皮堅而厚 | |
| | 血氣皆少 | 無毛, 外踝瘦無肉, | |
| 足 太陽 膀胱經 | 上 | 血氣盛 | 美眉, 眉有毫毛 |
| | | 血少氣多 | 面多肉, 血氣和則美色 |
| | | 血多氣少 | 惡眉, 面多少理 |
| | 下 | 血氣盛 | 跟肉滿, 踵堅 |
| | | 氣少血多 | 瘦, 跟空 |
| | | 血氣皆少 | 善轉筋, 踵下痛 |
| 手 陽明 大腸經 | 上 | 血氣盛 | 髭美 |
| | | 血少氣多 | 髭惡 |
| | | 血氣皆少 | 無髭 |
| | 下 | 血氣盛 | 腋下毛美, 手魚肉以溫 |
| | | 氣血皆少 | 手瘦以寒 |
| | | | |
| 手 少陽 三焦經 | 上 | 血氣盛 | 眉美以長, 耳色美 |
| | | 血氣皆少 | 耳焦惡色 |
| | | | |
| | 下 | 血氣盛 | 手捲多肉以溫 |
| | | 氣少血多 | 瘦以多脈 |
| | | 血氣皆少 | 寒以瘦 |
| 手 太陽 小腸經 | 上 | 血氣盛 | 口多鬣, 面多肉以平 |
| | | 血氣皆少 | 面瘦惡色 |
| | | | |
| | 下 | 血氣盛 | 掌肉充滿 |
| | | 血氣皆少 | 掌瘦以寒 |
| | | | |

(3) 六經形 (太陽, 少陽, 陽明, 太陰, 少陰, 厥陰)

12經脈는 手足三陰三陽經으로 구성되며 각각 氣血多少가 다르다. 經絡의 名稱은 手足과 三陰三陽과 臟器의 이름이 함께 붙는다. 그리고 三陰三陽에는 六氣와 五行이 相應되어 있다. 예를 들어 '足太陽膀胱經'이라 하면 手足 중 下部인 足에 해당하며, 三陰三陽 중에서는 太陽寒水에 속하고, 臟腑로는 膀胱에 속한다.

이와 같이 經絡은 陰陽五行, 五運六氣, 臟腑, 氣血, 四肢[手足] 등과 統體의인 關係를 이루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傷寒 처방을 응용할 때 六經에 대한 諸學說 중에서 經絡說, 臟腑說, 氣化說, 部位說, 六經地面說 등을 함께 연결하여 臨床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經絡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와 方向에 따라 六經도 太陽形, 少陽形, 陽明形, 太陰形, 少陰形, 厥陰形 등의 形象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形象은 물론 全身을 살피지만 특히 얼굴에서 코와 눈의 昇降氣勢와 顏面의 突出되고 陷沒함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六經形

| | 氣血多少 | 發達經絡 | 顏面氣勢 |
|-----|------|------|---------------------------|
| 太陽形 | 少氣多血 | 태양경락 | 코눈이 모두 올라감. 女子는 太陰形으로도 봄. |
| 少陽形 | 多氣少血 | 소양경락 | 눈은 내려오고 코는 올라감. 女子의 기본형. |
| 陽明形 | 多氣多血 | 양명경락 | 顏面이 突出함. 눈두덩과 입술이 두툼함. |
| 太陰形 | 多氣少血 | 태음경락 | 코눈이 모두 내려감. 女子는 太陽形으로도 봄. |
| 少陰形 | 多氣少血 | 소음경락 | 눈은 올라가고 코는 내려옴. 男子의 기본형. |
| 厥陰形 | 少氣多血 | 厥음경락 | 顏面이 陷沒함. 눈두덩이 험물함. |

5) 運氣學說-六氣

『素問·寶命全形論』¹⁰⁰⁾에 “사람은 天地의 氣에 의하여 생하고 四時운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¹⁰¹⁾에서 “하늘에 四時와 五行이 있으므로 萬物이 生長收藏하고, 또 寒暑燥濕風이라는 기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¹⁰²⁾에서는 “대개 百病이 생기는 것은 모두 風寒暑濕燥火의 변화로부터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篇¹⁰³⁾에서 六氣가 太過하여 邪氣로 작용해서 五臟에 疾病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¹⁰⁴⁾에서는 “客氣의 출현과 主氣의 太過不及 및 虛實변화 등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훌륭한 醫師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天地 自然의 기후 變化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 나타나고, 사람은 이러한 天地四時 기후변화에 相應하여 生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六氣의 太過不及의 변화에 따라 五臟에까지 疾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醫師는 반드시 運氣의 변화법칙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生命體가 生存을 위해서는 카멜레온 같이 自身의 形象을 環境에 맞추어 변화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람도 外部 六氣에 상응하여 人體 내부의 臟腑氣血 등이 調和를 이루며 변화해 간다. 이때 臟腑機能의 失調 등으로 人體 內의 六氣상태에 病理변화가 생기는 것을 ‘内生五邪’라 하는데 바로 內風·內寒·內濕·內燥·內火熱이다.¹⁰⁵⁾ 生命體는 風이 많은 곳에서는 風을, 濕이 많은 곳에서는 濕을, 寒이 많은 곳에서는 寒을 排除해야만 生存이 가능하다.

六氣는 臟腑와 經絡과도 연관되므로 形象진단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風이 많으면 코끝이 붉고 입술을 실룩거리며¹⁰⁶⁾ 風人形으로 생기고¹⁰⁷⁾, 寒이 많으면 魚鰓가 푸르고 입술도 떨며 위축

10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97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101) 裘乘哲,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5, p. 86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1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03 “夫百病之生也, 皆生於風寒暑濕燥火, 以之化之變也.”
 103) 上揭書, p. 301~302 “清氣大來, 燥之勝也, 風木受邪, 肝病生焉. 熱氣大來, 火之勝也, 金燥受邪, 肺病生焉. 寒氣大來, 水之勝也, 火熱受邪, 心病生焉. 濕氣大來, 土之勝也, 寒水受邪, 腎病生焉. 風氣大來, 木之勝也, 土濕受邪, 脾病生焉.”
 104) 裘乘哲,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5, p. 126 “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虛實之所起, 不可以爲工矣.”
 105) 文濬典 外, 東醫病理學, 高文社, 1993, p. 31
 106) 許浚, 國譯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295, p. 296
 107) 李家雄原著, 顏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 31

하고 푸르며¹⁰⁸⁾, 濕이 많으면 얼굴이 누렇게浮하고 光澤하며 몸이 뚱뚱하고 肌肉이 말랑말랑하며¹⁰⁹⁾, 燥가 많으면 몸이 마르고 皮膚가 거칠고 갈라지며¹¹⁰⁾, 火熱이 많으면 얼굴이 붉으며 눈도 붉고 口舌에瘡이 나며 瘡癩이 많다.¹¹¹⁾ 또한 運氣論을 應用하여 處方도 四時 氣候의 변화에 따라 藥物을 加減한다.¹¹²⁾

6) 體質論

체질이란 개개인의 形態, 氣質의 생리반응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病理上 개개인 發病 경향성으로 표현된다. 體質은 先天的으로 형성되고 後天的으로 類形이 固定되므로 일부에서는 體質을 “有機體의 遺傳性 및 획득성 특질의 合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¹¹³⁾ 體質은 하나의 개인적인 특성이며, 이 특성은 形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體質特性은 形體를 통해서 형성된다. 藏象論에 의하면 人體의 모든 形體(臟腑, 經絡, 四肢, 五官, 五體 등)와 生命活動에 필요한 모든 물질(精, 氣, 血, 津, 液 등)과 精神 활동(情志, 意識, 私有 등)을 모두 포괄하여 五臟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形體라는 개념은 臟腑, 氣血을 개괄한다.¹¹⁴⁾ 『靈樞·陰陽二十五人』과 『靈樞·通天』에 體質에 대해서 陰陽氣의 多少와 五行의 屬性을 가지고 體質을 분류하였다. 또 『靈樞·本藏』¹¹⁵⁾에서 “五臟은 본래부터 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이 있고, 六腑 역시 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이 있다”고 하여 發病과 體質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形象醫學에서는 四象으로 分派하는 體質의 分類에 있어서 하늘이 뿌린 生命體 固有의 種을 魚類, 鳥類, 走類, 甲類라는 四類形으로 구분하고, 땅이 生命體를 養育하는 根本구성요소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는 四科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形象의 觀點으로 볼 때 精氣神血科는 形論에 속하고 魚鳥走甲類는 象論에 속한다. 여기서 精氣神血과 魚鳥走甲은 人體의 形象을 모두 四象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五行의 歸類에 따라 五臟과 관계가 있다. 韓¹¹⁶⁾은 四象과 五行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말하길 四象은 不動的으로 四面이 구비된 物體와 같은 形象의 分別相을 의미하며 外的이고 有形을 말하며 靜的인 뜻이 있고, 五行은 自然運動의 性質의 分別相을 표시해서 하는 말로 內的이고 性質을 말하며 動的인 뜻이 있다고 했고, 또 四象에 中心인 生命處를 더한 것이 五行성이 되고 五行이 중심을 잃은 것이 四象이라는 한 形象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능의 分別相인 五行이 현상계에 유형으로

나타날 때는 中央土가 들어나지 않고 木火金水의 네가지 類形인 四象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겉으로 발현된 形象의 類形을 통하여 人體의 臟腑氣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1) 精科, 氣科, 神科, 血科

『素問·調經論』¹¹⁷⁾에 “心은 神을 저장하고, 肺는 氣를 저장하며, 肝은 血을 저장하고, 脾는 肉을 영양하고, 腎은 志를 저장한다”고 하였고, 『靈樞·本神』¹¹⁸⁾에서는 “腎은 精을 저장하고 精은 志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여 肝藏血하고 心藏神하며 肺藏氣하고 腎藏精하여 이것이 形體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肝心脾腎이 精氣神血을 간직하므로 直觀的 思惟方法에 의해 精氣神血을 形象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診斷이 가능하다. <표 14 참조>

표 14. 精科, 氣科, 神科, 血科의 특징

| | 精科 | 氣科 | 神科 | 血科 |
|------|-----|----------|-----------|-------------|
| 얼굴形 | 圓形 | 方形 | 天垂象 | 地積象 |
| 五臟關係 | 腎藏精 | 肺藏氣 | 心藏神 | 肝藏血 |
| 主要生理 | 集 | 散 | 定 | 包 |
| 主要病理 | 精漏泄 | 氣鬱滯, 或氣虛 | 七情鬱結, 或痰火 | 血未包(出血), 瘀血 |

(2) 魚類, 走類, 鳥類, 甲類

『素問·五常政大論』에서 五行의 특성을 따고 태어난 毛蟲, 羽蟲, 裸蟲, 介甲蟲, 鱗蟲가 나온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魚類, 鳥類, 走類, 甲類은 土를 제외한 木火金水의 屬性을 지닌 動物을 예로 들어 사람을 四象類形으로 分類한 것이다.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 種의 개념이다.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그 생명체의 형태와 색과 機能과 性情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을 類形別로 나누어 그 특징인 形態, 性情, 機能, 色을 관찰하면 그 유형의 臟腑氣血 상태와 좋아하는 놀이터의 환경과 즐겨먹는 먹이사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을 應用하면 臨床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표 15 참조>

표 15. 魚類, 走類, 鳥類, 甲類의 특징

| 段 | 類 | 走類(木) | 魚類(水) | 鳥類(火) | 甲類(金) |
|----|---|-------|-------|-------|-------|
| 一段 | | 毛 | 鱗 | 羽 | 甲 |
| 二段 | | 走行 | 潛下 | 飛上 | 隱伏 |
| 三段 | | 足先動 | 尾先動 | 肩先動 | 背先動 |
| 四段 | | 肝大 | 腎大 | 心大 | 肺大 |
| 五段 | | 多怒 | 多恐 | 多喜 | 多哀 |
| 六段 | | 聾大 | 無聾 | 多語 | 寡語 |
| 七段 | | 鼻發達 | 口發達 | 目發達 | 耳發達 |
| 八段 | | 多情 | 無情 | 有情 | 有性 |
| 九段 | | 慧智 | 直覺 | 理智 | 靈感 |
| 十段 | | 仁愛 | 能變 | 禮度 | 義貞 |

108) 許波, 國譯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399, p. 296

109) 上揭書, p. 406, p. 470, p. 477, p. 607, p. 609

110) 上揭書, p. 614, p. 477

111) 上揭書, p. 617~618, p. 477, p. 470~471

112) 許波, 東醫寶鑑, 大星文化社, 1992,

①(內景篇) p. 85 “四物湯 通治血病, 熟地黃·白芍藥·川芎·當歸 各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 水煎服(局方) ○一方, 春倍川芎, 夏倍芍藥, 秋倍地黃, 冬倍當歸. ○春加防風, 夏加黃芩, 秋加天門冬, 冬加桂枝(綱目)”

②(雜病篇) p. 194 “內傷挾外感者, 則於補中益氣湯內, 春加川芎·防風·柴胡·荊芥·紫蘇·薄荷, 夏加乾葛·石膏·麥門冬·薄荷·倍升柴, 秋加羌活·防風·荊芥, 冬加麻黃·桂枝·乾薑之類(方廣)”

③(雜病篇), p. 227~228 “凡人, 四肢痿弱, 無力多困, 未知陰陽先損, 夏可用六味地黃丸, 春秋宜腎氣丸, 冬宜八味丸(保命)”

113) 梁秉哲, 基礎韓醫學, 成輔社, 1997, p. 231

114) 上揭書, p. 233~234

1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3 “五臟者, 固有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者, 六腑亦有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

116) 韓圭性, 易學講話原理, 東方文化, 1990, p. 135~136

1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6 “夫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 而此成形.”

1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69 “腎藏精, 精舍志”

11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 1990, p. 150

결 론

形象理論에 대하여 『內經』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文獻을 참고해서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形象’이란 用語는 『周易』과 『內經』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概念으로 天의 象과 地의 形이 交合하여 생긴 ‘事物의 생김새와 상태’를 뜻하며 ‘形’이란 事物을 구성하는 組織으로 形體를 뜻하고, ‘象’이란 事物에 內在한 本質(種子)을 뜻하며 徵兆로 나타난다. 人體의 形象을 관찰할 때는 天人相應의 原理를 응용하여야 한다. 보통 人體에서 形은 形體를 爲主로 나타나고 象은 色態로 나타난다. 形象을 통한 診察은 人體 내부의 五臟六腑와 精神氣血이 외부로 드러난 發顯象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診察 때에는 觀形察色이 중요하고 脈과 症을 合一하여 完全을 추구해야 한다. 形象理論은 韓醫學의 基礎理論인 陰陽五行論, 藏象論, 經絡學說, 運氣學說, 體質學說 등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 기초이론에 입각한 主要 形象分類는 陰盛陽虛形, 陽盛陰虛形, 男女의 形象, 五臟의 外候 形象, 六腑의 外候 形象, 六經形, 精科, 氣科, 神科, 血科, 魚類, 走類, 鳥類, 甲類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印象을 할 때 이와 같은 형상이론을 적용하면 한의학의 本질성을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形상이론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85.
4.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0.
5. 金碩錫, 周易傳義大全譯解, 서울, 大有學堂, 1996.
6. 裴秉哲,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5.
7. 裴秉哲,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8. 許 浚, 國譯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
9.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0.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史, 1998.
11.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3. 李家雄原著, 顏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14. 崔容泰 外, 鍼灸學, 서울, 集文堂, 1988.
15. 朴贊國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16. 文裕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6.
17. 文裕典 外,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18. 裴秉哲, 基礎韓醫學, 서울, 成輔社, 1997.
19.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0.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 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1998.